

표현주의_인간 내면의 비극적 세계관의 표현

독일의 미술사학자 빌헬름 보링거는 저작 <추상과 감정이입>에서 자연조건이 우호적인 남유럽 라틴계열 민족의 미술 양식과 자연조건이 적대적인 북유럽 게르만 계열 민족의 미술 양식이 서로 상이하다고 보았다. 쉽게 사물과의 감정이입을 경험할 수 있는 라틴계 화가들은 긍정적인 자연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물의 외형을 충실히 재현하는 자연주의적 미술 양식을 발전시켰다. 반면 북유럽 화가들은 비극적인 세계관과 비우호적인 자연의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경외감과 불안감을 바탕으로 사물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상당할 정도로 왜곡시켜 표현하거나 아예 아무런 이미지도 재현하지 않는(그러므로 자기 내면으로 숨는) 추상주의적 회화 양식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보링거는 서로 다른 자연조건이 서로 다른 미술 양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간주했는데, 일종의 환경결정론이라고 해도 좋다.

여기서 북유럽인의 비극적인 세계관과 자연관은 표현주의 화가들의 관념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표현주의 미술의 진정한 기원은 세기말 이전 중세 북유럽 고딕양식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북유럽에 속하는 엘 그레코와 그린네발트 두 화가에게로 소급된다. 그들의 양식을 특징짓는 사물의 외형을 왜곡시키는 태도는 이후 표현주의 화가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표현주의 양식이 근래의 신표현주의와 그룹 「코브라」에 이르기까지 특히 독일 권역을 중심으로 강한 지역성을 띠며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점을 결코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표현주의는 세기말의 불안정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특정 시기와 무관하게 불안정한 형국이 지속될 때는 언제든지 표현주의 양식이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표현주의는 사물의 외형을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기보다는 느껴지는 대로 그린다.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 혹은 재현보다는 사물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양식들에 비해 작가 개인의 세계관 혹은 자연관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신병리학적, 심리학적 분석과 접근이 용이한(비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편이다.

표현주의의 특징은 사물의 형태에 대한 왜곡과 원색의 과감한 사용을 들 수 있다. 왜곡과 원색을 통해 작가의 주관적인 심경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사물의 형태와 색채의 사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때로 사물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두드러지게 멀어지기도 한다. 이 말은 특히 색채의 경우, 사물의 고유색 혹은 자연색과 무관하게 색채가 느낌의 상징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빨간색은 열정과 불안을, 초록색은 광기를, 검은색은 속박과 암울함과 죽음을, 파란색은 금욕과 절제를, 흰색은 순수와 순결을, 보라색은 불건전함과 정신적인 질병을 상징하는 식이다(물론 색채감정 자체는 주관적인 탓에 지나친 일반화는 경계할 일이지만). 따라서 이러한 색채들이 작가의 주관적인 심경 변화에 따라서 사물 본래의 자연색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본웅의 그림 「여인」은 육체의 감옥(검은색의 아우트라인)에 갇힌 작가 개인의 고뇌를, 혹은 모델의 열정과 불안(빨간색으로 표상된)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해석은 이 그림이 그려진 1930년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 상황과도 일치하고 있다.

표현이라는 말에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미술사 속에 등장하는 특정 시기에 나타난 특정 경향의 양식을 지시하는 표현주의를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굳이 미술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저마다 심경에 담고 있는 바를 외부로 드러내거나 객관화하는 과정을 00를 표현한다는 말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휘의 포괄적인 사용은 표현주의 미술의 다양한 형태의 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어휘가 미술(사) 속의 특정 양식을 지시하기 위해 한정된 경우로 보면 되겠

다.

표현주의 미술의 양식적 특징으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태의 왜곡과 자의적인 색채의 사용을 들 수 있고, 그 예는 특히 세기말을 전후한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서 확인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독일 표현주의와 프랑스 야수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이전에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 격인 두 화가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반 고흐와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들이다.

반 고흐는 철저하게 자의적인 의미로 색채를 사용했으며, 이와 더불어 격렬한 붓 놀림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주의 미술의 본격적인 등장을 예비하고 있다.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로서의 반 고흐의 기질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즉 화가는 인간의 끔찍한 정념을 표현하는 (내지르는 듯한) 고흐를 강한 원색으로 강조한다고 적고 있다. 북구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노르웨이 태생인 에드바르트 뭉크는 북유럽 특유의 습한 기후로부터 우울한 기질을 이어받고 있으며, 세기말의 정서를 불안감의 파토스(비극적인 열정)로 표현함으로써 표현주의 화가들의 또 다른 선구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 표현주의 미술은 1905년에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최초로 결성된 다리파(디 브뤼케)와 1911년에 독일의 뮌헨에서 결성된 청기사파(디 블라우라이터)로 대표된다. 다리파에서 다리의 의미는 도래할 새 시대와 구시대를 잇는다는 뜻으로, 니체의 아포리즘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그룹명에서 아방가르드 특유의 혁명적인 전언이 느껴진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와 에리히 Heckel, 그리고 에밀 놀데 등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화가들이 이후 나치 정권에서 소위 퇴폐미술로 지목되면서 박해를 당하기도 했다.

그룹 청기사에서 청기사의 의미는 청색이 가지는 상징성, 즉 도래할 미래를 예비하는 유토피아니즘과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로서의 기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주요 화가로는 칸딘스키와 폴 클레 등이 있으며, 그 성격은 엄밀하게 말해 표현주의적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추상 형식의 회화적 경향성을 예비하는 단계에 가깝다. 그룹 청기사파는 이후 유명한 바우하우스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미술교육 개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1899년 마티스에 의해 시작된 프랑스 야수파는 이후 블라맹크와 드랭 등의 화가를 포함한다. 야수파의 표현주의적 성격은 마티스 자신의 다음과 같은 전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표현이고, 색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름 아닌 표현을 도와주는 것에 있다. 야수파라는 명칭 자체는 특히 소박파 혹은 프리미티비즘아트(원시미술)로 분류되는 두아니에 루소의 그림을 거의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이후 루소의 그림은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의해 재발견 재평가되기도 한다). 프랑스 야수파는 독일 표현주의 미술과 비교해볼 때 특정 운동으로서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아마도 운동에 참여한 화가들의 경향이 공통된 성격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두드러진 탓일 것이다.

독일 표현주의와 프랑스 야수파 이외에 표현주의적 경향성을 강하게 띤 동시대 화가들로는 벨기에의 제임스 앙소르, 프랑스의 조르주 루오와 카임 수틴,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오스카 코코슈카(구스타브 클림트, 에곤 슐레와 함께 비엔나분리파의 작가이기도 한) 등을 들 수 있다.

앙소르는 카니발 행렬에서 흔히 사용되는 해골 가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잔혹성과 비열함을 들추어 내고 있다. 루오는 사람들을 정신을 결여한 비겟덩어리로 냉담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성 상실의(정확하게는 도덕성을 상실한 인간의) 고발과 함께 종교적인 경외감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푸줏간에 걸린 고깃덩어리를 묘사하고 있는 수틴의 그림은 해체된 인체를 연상시켜 섬뜩한 느낌을 준다. 그의 그림에서 고깃덩어리와 해체된 인체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니컬한 태도가 이후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코코슈카의 그림은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널리 성행한 학문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프로이트에 의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정신분석학 혹은 정신병리학 등 심리학의 본격적인 등장이 그렇다. 모델의 내면에 숨겨진 심리를 포착하려는 코코슈카의 태도에서 당시 학문적 성과의 반영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표현주의 화가들은 특히 인간과 인간이 처한 상황으로서의 사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룹 「코브라」; 코펜하겐, 브뤼셀, 암스텔담 세 도시를 아우르는 그룹 차원의 미술운동. 카렐 아펠과 알레친스키가 대표적인 화가임.